



미 증시, 금리인하 기대감, 마이크론 호실적 등으로 강세

미국 증시 리뷰

21 일(목) 미국 증시는 3 월 FOMC 이후 6 월 금리인하 기대감 확대, 스위스 중앙은행의 서프라이즈성 금리인하 등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 속 마이크론(+14.1%)의 호실적으로 인한 반도체주 동반 강세 등에 힘입어 상승 마감. 다만, 장 종반 이후 차익실현 물량이 출회된 가운데, 미 법무부의 독점 소송에 따른 애플(-4.1%) 주가 약세 등이 장중 상승폭을 반납하는 요인으로 작용(다우 +0.7%, S&P500 +0.3%, 나스닥 +0.2%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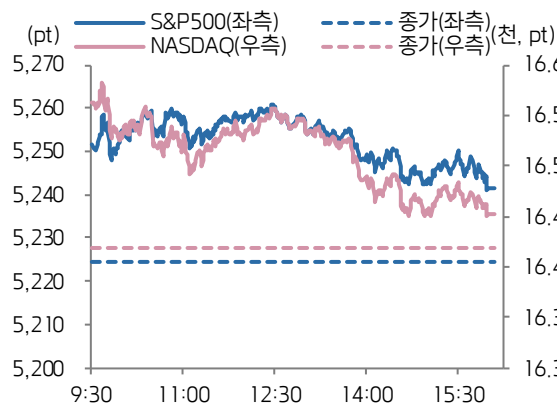
스위스 중앙은행(SNB)을 3 월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기존 1.75%에 1.50%로 인하(컨센은 동결). '24 년 인플레이션 전망치도 기존 1.9%에서 1.4%로 하향. SNB 측은 인플레이션이 2% 이하로 하락함에 따라 물가안정의 범위내에 있다면서, 향후 수년간 인플레이션이 그 범위에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.

영란은행(BOE)은 3 월 통화정책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5.25%로 유지하기로 결정. 위원 9명 중 8명이 동결을 제시했으며 1 명이 인하를 제시하는 등 인상 의견이 없었던 사례는 2021 년 9 월 이후 처음. 앤드류 베일리 BOE 총재는 금리인하 시점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으나, 그래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언급. 또 금리 인하를 위해선 인플레이션이 2% 목표치까지 낮아지고 그 범위에서 머물러야 한다고 강조.

미국의 3 월 S&P 글로벌 제조업 PMI 는 52.5 로 전월(52.2) 및 컨센(51.8)을 상회하는 호조세를 기록했으나, 서비스업 PMI 는 51.7 로 전월(52.3) 및 컨센(52.0)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기록. 집계 측은 미국 경제가 지난 2 분기 이후 가장 탄탄한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, 기업의 신규주문도 늘어나고 고용도 증가 하고 있다고 평가. 컨퍼런스보드의 경기 선행지수는 0.1%(MoM)으로 전월(-0.4%)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전환했으며, 컨센(-0.1%)도 상회. 컨퍼런스보드 측은 제조업 쪽은 근로시간, 주가, 신용, 건설 등이 강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인 경기 선행지수의 반등을 견인했다고 언급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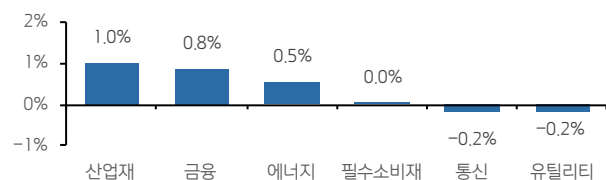
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는 21.0 만건으로 전주(21.2 만건) 및 컨센(21.2 만건)을 모두 하회. 연속실업수당청구건수 180.7 만건으로 전주(180.3 만건)에 비해 소폭 늘어났으나, 컨센(182.0 만건)은 하회.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도 3.2pt 를 기록하면서 전월(5.2)에 비해 다소 둔화됐으나, 컨센(-2.6)은 큰 폭으로 상회.

S&P500 & NASDAQ 일중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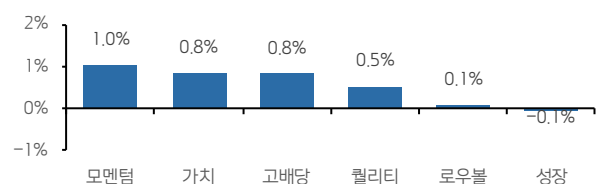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주요 지수

주식시장			외환시장		
지수	가격	변화	지수	가격	변화
코스피	2,754.86	+2.41%	USD/KRW	1,322.43	-1.27%
코스피 200	373.66	+2.85%	달러 지수	104.01	+0.6%
코스닥	904.29	+1.44%	EUR/USD	1.09	+0.01%
코스닥 150	1,516.91	+2.32%	USD/CNH	7.22	+0%
S&P500	5,241.53	+0.32%	USD/JPY	151.61	-0.01%
NASDAQ	16,401.84	+0.2%	채권시장		
다우	39,781.37	+0.68%	국고채 3년	3.305	-6bp
VIX	12.92	-0.92%	국고채 10년	3.408	-3.2bp
러셀 2000	2,098.56	+1.14%	미국 국채 2년	4.636	+3.4bp
필라. 반도체	4,897.88	+2.29%	미국 국채 10년	4.267	-0.6bp
다우 운송	16,001.42	+1.14%	미국 국채 30년	4.435	-1.8bp
유럽, ETFs			원자재 시장		
Eurostoxx50	5,052.31	+1.04%	WTI	80.86	-0.26%
MSCI 전세계 지수	783.34	+0.68%	브렌트유	85.78	-0.2%
MSCI DM 지수	3,434.69	+0.58%	금	2206.2	-0.01%
MSCI EM 지수	1,048.34	+1.57%	은	24.85	-0.34%
MSCI 한국 ETF	67.53	+1.05%	구리	404.65	+0.2%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



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

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	MSCI 한국 지수 ETF 는 +1.05% 상승, MSCI 신흥국 ETF 는 +0.12% 상승. 유렉스 야간선물은 0.53% 하락. NDF 달러/원 환율 1 개월물은 1333.59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, 달러/원 환율은 11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.
주요 체크 사항	1. 비둘기파적이었던 FOMC 이후 글로벌 주요 중앙은행 금리 인하 기대감 확산 2. 마이크론 강세 및 인텔 반도체법 보조금 수혜 3. 삼성전자 보조금 수혜 및 반도체 소부장 추가 강세 예상

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

FOMC 이후 스위스 중앙은행의 첫 금리인하, IPO 흥행 등에 위험선호심리 확산된 가운데, 글로벌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6월 금리 인하 기대감 유지되며 4월초까지 증시에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 예상.

스위스중앙은행이 주요 은행 중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25bp 인하. 물가상승률 1월 1.3%, 2월 1.2%로 다른 유럽국가(영국 4%대) 대비 낮게 유지되었던 것에 기인한 결정. BOE 는 이날 금리를 동결하긴 했으나, 소수 의견에 금리 인상 의견이 사라지고 1 명이 25bp 인하를 지지하며 조만간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. BOE, ECB, 연준 모두 6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컨센서스 형성.

추가로 중국 인민은행은 지급준비율 추가 인하 여력이 있음을 시사. 중국 1~2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가 YOY 7.0%, 5.5% 증가하는 등 연초 경제 흐름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며, 향후 예금금리 인하, 대출금리 인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예고.

중국 부양책 기대, 유럽 금리인하 기대 및 서비스업 PMI 호조 등 미국 외 지역으로 위험선호 심리 확산. 다만 이에 따른 유가, 구리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은 우려 요인. 미국 제조업 지수, 경기선행지수, 주택판매, 실업수당청구건수 등 경제지표 호조 발표 이후 미국채 금리는 소폭 상승. 작년 하반기 미 CPI 3.0%까지 하락했을 당시 올해 1월 FOMC 에서 조기 금리인하 기대감이 확산되었으나 연준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기대감을 차단했던 경험. 3월 CPI (컨센서스 헤드라인 3.4%, 근원 3.7%) 전후로 변동성 확대 시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가능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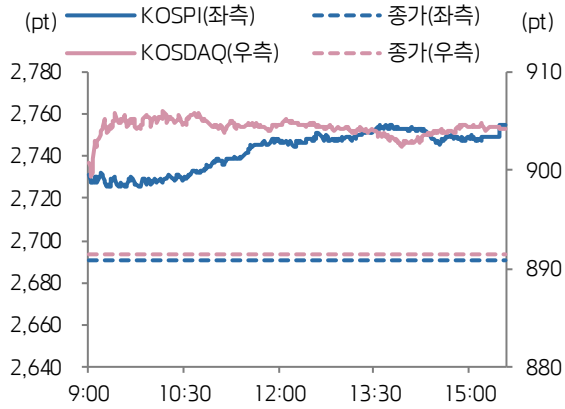
21일(목) 국내증시는 비둘기파적이었던 FOMC, 마이크론 시간외 15% 강세 및 삼성전자 보조금 수혜 기대감, 20일까지 수출 YOY 11.2%로 전월(-7.8%) 대비 증가 전환 등에 외국인 현선물 3.4조원 순매수에 힘입어 전업종 강세. (KOSPI +2.41%, KOSDAQ +1.44%)

금일 역시 저 PBR, 반도체, 조선, 전력기기 등 위험선호심리가 확산되며 상승출발할 것으로 전망.

미 정부는 3월 28일 삼성전자에 반도체 보조금 발표 계획. CHIPS 법에 따르면 반도체 생산 보조금 390억 달러, R&D 지원금 132억달러로 세액공제 25% 포함 5년간 총 527억 달러 지원. 390억 달러 중 영국 방산업체 BAE의 뉴햄프셔 공장에 3,500만 달러, 미국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1억 6,200만달러, 글로벌파운드리 15억달러, 인텔 오하이오, 애리조나 공장에 85억 달러 확정, 삼성전자 60억달러, TSMC 50억달러 전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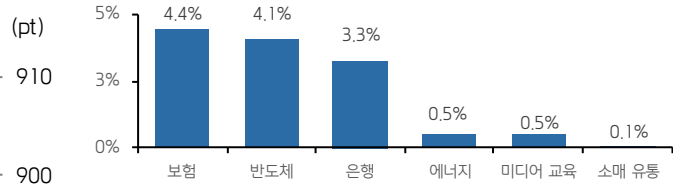
삼성전자 보조금 기대감 및 엔비디아 CEO 젠슨황이 삼성전자 HBM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에 반도체 중소형주 뿐만 아니라 전력기기 역시 수혜주로 분류되는 모습. 정책 및 대중 견제 수혜주는 반도체, AI, 조선에 이어 바이오테크로 확산 될 여지 존재. 최근 워싱턴에서 바이오테크 역시 AI, 양자 컴퓨팅, 첨단반도체에 이어 상업성과 군사기술 개발 목적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업종으로 지목. 최근 트럼프 역시 미국의 중국 의약품 제조에 의존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중국의 제약, 철강 수입품과 생산된 제품을 축소하기 위한 4년 계획 도입을 공약.

KOSPI & KOSDAQ 일중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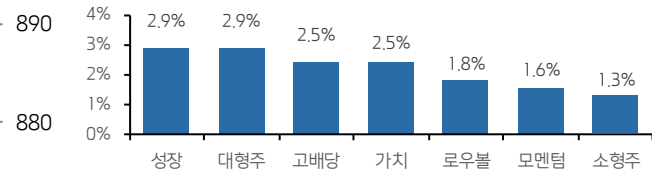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Compliance Notice

-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-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사항

-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